

오경화, 하늘 땅 사람들, 1990, TV 16대, 비디오 & 컴퓨터 그래픽, 컬러, 사운드, 27분 4초, 작가 소장

한국 비디오아트 태동부터 전개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비디오 아트의 거장은 백남준(1932~2006)이지만, 외국 무대에서 활동한 그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전인 1970년대 초 국내에서도 비디오 아트가 시작됐다. 비디오카메라가 대중화하지 않은 1970년대에 새로운 실험과 대안으로 시도된 한국 비디오 아트는 미디어 기술 발달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됐다.



백남준, 굿모닝 미스터 오웰, 1984, 비디오, 38분, 미국 영상자료원 소장

국립현대미술관(MMCA) 과천관에서 열리는 '한국 비디오 아트 7090: 시간 이미지 장치'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비디오 아트 30여년 역사를 조망한다. 1970년대 초기 비디오 아트부터 1980~1990년대 조각과 설치에 영감을 접목한 비디오 설치 작업, 영상 이미지와 서사에 주목한 1990년대 후반 작업까지 한국 비디오 아트가 걸어온 길을 소개한다.

김구림, 박현기, 김영진, 이원근, 김수자, 함양아, 박화영, 문경원, 전준호, 김세진 등 60여 작가 작품 130여 점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 비디오 아트의 세대별 특성과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한국 비디오 아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백남준 작품도 있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1984년 1월 1일 생방송 된 백남준의 TV 위성 쇼를 편집한 작품이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파리, 서울을 연결하는 이 프로젝트로 백남준과 비디오 아트는 한국에도 널리 알려졌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전시 후 철거하기 아까울 정도로 한국 비디오 아트 역사를 교과서적으로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전시일정(장소) 5월 31일까지(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관람료 3천원
☎ 02-2188-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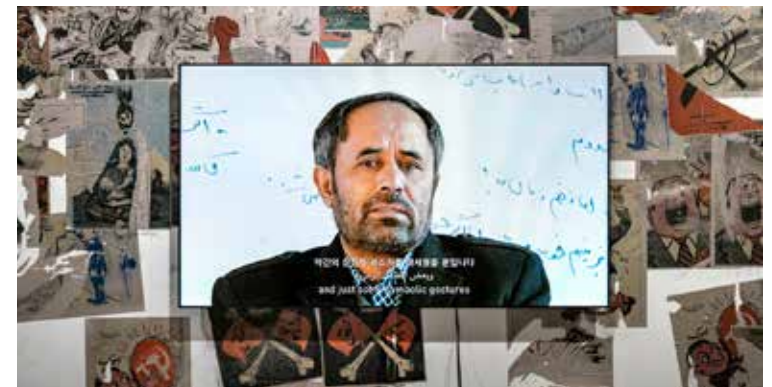
서울서 보는 중동 현대미술의 진수

서울시립미술관(SEMA) 중동현대미술전 '고향'은 세계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중동 출신 작가 작품들을 감상할 기회다. 분쟁과 충돌 등 복잡한 배경을 지닌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 미술을 살펴보는 키워드는 고향이다. 고향을 잃고, 고향을 빼앗기고, 고향이 없거나 고향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예술로 표현했다. 라이드 이브라힘, 모나 하툼, 무니라 알 술, 아델 아비딘, 아메르 쇼말리, 주마나 에밀 아부드 등 16팀이 전시에 참여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출신 작가 하젬 하브의 '땅의 지도' 시리즈는 예루살렘 옛날 사진, 나무 동치 단면, 기하학적 도형을 콜라주로 조합한 작품이다. 고향이 겪어낸 시간을 이미지로 기억하려는 작가의 노력이다. 아델 아비딘의 '청소'는 먼지 묻은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두고 물대포로 씻기는 장면이 등장하는 비디오 작업이다. 전쟁과 인종 청소 같은 잔혹한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전시일정(장소) 3월 8일까지(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관람료 무료
☎ 02-2124-8998



'고향' 전 설치 전경



하딤 알리, 이단자를 위한 '오', 지하드를 위한 '자'



'아름다움, 기묘함 더러움', 설치전경

미추 본질 묻는 기묘한 아름다움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최연소 작가로 참여하며 일찌감치 주목받은 문성식 작가가 4년 만에 개인전을 열고 신작을 선보인다. 국제갤러리 개인전 '아름다움, 기묘함, 더러움'은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꽃과 나비에게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일상이자 분투 현장인 장미 넝쿨을 보여준다. 작가는 장미 넝쿨이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라 꽃, 새, 벌레가 저마다 본성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공간임을 직시한다. 꽃에 매혹돼 직접 장미를 길렀다는 작가는 "장미 그림은 내가 생각하는 세계의 축소판"이라며 "모두 자기 욕망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체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는 끌림이다. 사람이나 곤충이 꽃에 이끌리는 근원적 끌림에 대한 관심에서 장미 연작이 시작됐다. 24점으로 구성된 과슈 드로잉 연작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은 본능에 이끌려 뒤엉킨 남녀의 신체를 묘사한다.

전시일정(장소) 1월 19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제갤러리)
관람료 무료
☎ 02-3210-9872



‘브로맨스’로 그려낸 세종과 장영실 이야기 천문: 하늘에 묻는다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는 우리가 익히 아는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에 ‘브로맨스’라는 양념을 첨가했다.

출발은 세종실록에 기록된 한 줄의 역사다. ‘장영실이 감독한 안여(安輿·임금이 타는 가마)가 튼튼하지 못해 부서져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했다’는 내용. 여기에 영화적 상상력을 덧대 ‘안여 사건’을 전후한 역사의 빈틈을 메워나간다. 영화는 안여 사건 며칠 전 명나라 사신이 와서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관측할 수 있는 천문의기를 철거할 것을 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하늘은 명나라 황제의 것이므로 조선은 조선만의 하늘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이후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 세종이 관노였던 장영실의 타고난 재주를 알아보고 벼슬을 하사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장영실은 그 후 20년간 세종 옆을 지키며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관측할 수 있는 천문의기를 만든다.

주변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끊임없이 뒤흔든다. 조정의 신하들은 조선의 근간인 신분 체계를 뒤흔든 돌을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명나라 역시 조선이 천문사업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왕인 세종과 천민 출신 장영실을 이어주는 것은 백성을 생각하는 세종의 마음이다. ‘세종 바라기’인 장영실은 그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돼 있다. 여기서 절절한 브로맨스가 탄생한다. “네 소

원이 무엇이나”, “평생 전하 곁에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군신 관계를 넘어 때로는 벗 같고, 연인 같다. 세종을 바라보는 장영실의 눈빛에는 존경과 설렘, 사랑과 같은 다양한 감정이 교차한다. 세종이 자신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쓰자 질투하기도 한다.

이 브로맨스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은 삼십년지기 최민식과 한석규의 연기 호흡이다. 선이 굵은 연기를 주로 해왔던 최민식은 아기처럼 순수한 모습의 장영실을 그려냈다. ‘호빵맨’처럼 둥글둥글하고 순진한 모습을 보여줄 때면 우리가 알았던 최민식이 맞나 싶을 정도다. 한석규는 다른 작품에서 본인이 연기했던 세종과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장영실을 대할 때는 한없이 자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강한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두 사람이 만나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신뢰가 뿜어져 나온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브로맨스가 완성될 정도다. 정통 사극도 멜로로 변주할 수 있는 허진호 감독의 재주 역시 빛난다.

감독 허진호
출연 최민식, 한석규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2019년 12월 26일

미드웨이

태평양 전쟁을 소재로 한 블록버스터로, 진주만 공습 후 태평양을 넘보던 일본 제국에 맞서 승리한 미드웨이 해전을 다뤘다. 미드웨이에서 패하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군은 긴박하게 전열을 정비한다. 일본군보다 열세였지만 치열한 정보전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는 군인들 덕분에 승리하게 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바다에서 펼쳐진 해전을 재현해낸 화면과 에드 스크레인, 우디 해럴슨, 패트릭 윌슨, 루크 에번스 등 연기파 배우들의 묵직한 존재감이 눈길을 끈다. ‘투모로우’ 등을 연출한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감독 롤랜드 에머리히
출연 에드 스크레인, 우디 해럴슨, 루크 에번스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2019년 12월 31일



닥터 두리틀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출연해 화제가 된 판타지 영화다. 동물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닥터 두리틀이 동물 친구들과 모험을 떠나는 내용으로, 영국의 작가 휴 존 로프팅이 쓴 닥터 두리틀 시리즈 중 두 번째인 ‘닥터 두리틀의 바다 여행’이 원작이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외에도 고릴라 역의 라이 말렉, 개 역의 톰 홀랜드, 여우 역의 마리옹 코티야르, 기린 역의 셀레나 고메즈, 오리 역의 옥타비아 스펜서, 호랑이 역의 레이프 파인스, 앵무새 역의 에마 톰슨 등 화려한 더빙 캐스팅을 자랑한다.

감독 스티븐 개건
출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개봉 2020년 1월 8일



눈의 여왕 4

겨울 방학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과학과 기술만을 최고로 여기고 마법을 혐오하는 왕이 우연히 마법 유물을 발견한다. 겨울 나라로 통하는 문으로, 왕은 나라의 모든 마법사를 이곳에 가둘 계락을 세운다. 주인공 겐다는 가족들 모두가 마법사라는 이유로 겨울 나라에 갇히게 되자 과거 적이었던 눈의 여왕의 도움을 받아 가족과 다른 마법사를 구해내려 한다. 마법이 일상적으로 쓰인다는 상상력과 과학과 마법의 대결이 불만하다. 다만 전편들을 보지 않았다면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감독 로버트 렌스, 알렉세이 트시찰린
출연 (더빙) 양정화, 박지운
등급 전체관람가
개봉 2019년 12월 24일



피아니스트의 전설

‘시네마 천국’을 만든 이탈리아의 거장 감독 쥘세페 토르나토레와 음악 감독 엔니오 모리코네가 만난 영화로, 배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육지를 밟아본 적 없는 천재 음악가의 이야기를 그린다. 1900년 유럽과 미국을 오가는 버지니아 호에서 태어나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살아온 천재 피아니스트 나인틴 헨드레드는 유일한 친구인 트럼펫 연주자이자 첫사랑 퍼든,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재즈 피아니스트를 만나 조금씩 바다 밖 세상을 배워간다. 1998년 작품으로, 리마스터링돼 재개봉한다.

감독 쥘세페 토르나토레
출연 팀 로스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2020년 1월 1일



‘퀸’이 온다...첫 단독 내한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QUEEN)이 단독으로 한국을 찾는다. 퀸은 2014년 ‘슈퍼소닉’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 무대에 오른 적이 있지만, 단독 내한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25번째 현대카드 슈퍼콘서트인 이번 공연은 퀸이 지난 7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작한 월드투어 ‘더 랩소디 투어’ 일환이다.

퀸은 프레디 머큐리, 브라이언 메이, 존 디콘, 로저 테일러 4인조로 1971년 영국에서 결성됐다. ‘어 나이트 앳 디 오페라’를 비롯한 15장의 정규 스튜디오 앨범을 발매해 ‘보헤미안 랩소디’, ‘위 윌 록 유’, ‘위 아 더 챔피언’ 등 수많은 명곡을 선보였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2억장이 넘는 음반을 판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1991년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한 후에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오리지널 멤버인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와 드러머 로저 테일러가 보컬리스트 아담

램버트와 무대에 오른다. 램버트는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 팝스타다. 오리지널 멤버 가운데 베이스리스트 존 디콘은 1997년 은퇴했다. 지난해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국내에서 1천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모으며 다시 퀸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퀸 세대가 아닌 20대와 30대 사이에서도 싱어롱이 유행하는 등 신드롬에 가까운 큰 인기를 끌었다.

공연일정(장소) 1월 18~19일(서울 고척스카이돔)
티켓 1만~18만7천원
☎ 02-3141-9226

맥스

미국의 촉망받는 싱어송라이터 맥스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공연을 연다.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한 맥스는 2015년 EP ‘미스 어나니머스’(Ms.Anonymous)를 내며 가수로 첫발을 뗐다. 트렌디한 팝 사운드와 허스키한 목소리로 높은 음역을 넘나드는 게 특징이다. 2016년 발매한 정규 1집 ‘헬스 키친 앤젤’(Hell’s Kitchen Angel) 수록곡 ‘라이트 다운 로’(Lights Down Low)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서 20위까지 올랐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슈가가 그의 노래 ‘러브 미 레스’(Love Me Less)를 좋은 노래로 추천하기도 했다.

공연일정(장소) 1월 14일(서울 마포구 무브홀)
티켓 7만7천원
☎ 1899-0042



본 이베어

미국 밴드 본 이베어가 단독 내한공연을 한다. 싱어송라이터 저스틴 버논을 주축으로 결성된 미국 출신 인디밴드로, 짙은 서정성에 얽은 깊이면서도 트렌디한 음악으로 세계적인 밴드로 발돋움했다. 2011년 이들의 두 번째 정규앨범 ‘본 이베어’는 평단뿐만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큰 공감을 얻으며 제54회 그래미 어워드 신인상 및 최고의 얼터너티브 뮤직 앨범상을 받았다. 이들은 최근 새 앨범 ‘i’를 발매하고 월드투어를 시작해 한국을 찾게 됐다.

공연일정(장소) 1월 12일(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
티켓 11만1천원
☎ 02-563-0595

김재중

국내에서 오랫동안 가수 활동을 한 JYJ 김재중이 콘서트를 연다. 1월 중 신보를 발표하고 아시아투어에 들어가는 김재중은 서울에서 첫 무대를 가진다. 김재중은 2016년 군 전역 후 가수 활동을 주로 해외에서 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일본에서 낸 첫 번째 솔로 앨범 ‘플로리스 러브’(Flawless Love)는 오리콘차트 정상에 올랐다. 일본 8개 도시에서 16회에 걸쳐 아레나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다. 2013년 첫 번째 솔로 미니 앨범 ‘1’와 이후 발표될 두 번째 미니앨범 수록곡을 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일정(장소) 1월 18~19일(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
티켓 1만~13만2천원
☎ 1899-0042



호우(손호영&김태우)

가수 김태우와 손호영이 유닛 ‘호우’로 다시 한번 뭉친다. 이들은 ‘2019~20 호우 그랜드 라이브’(HooW Grand Live)라는 이름으로 전국 투어에 들어간다. 부산과 대구를 거쳐 서울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god로 1998년 데뷔한 이들은 그룹 활동 당시 ‘어머님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보통날’, ‘거짓말’, ‘길’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국민 그룹’으로 불리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이들은 2005년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들어갔다. 손호영과 김태우 역시 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콘서트를 열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god는 2014년 원년 멤버가 모여 8집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공연일정(장소) 1월 4~5일(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티켓 1만~12만1천원
☎ 1544-1555



초특급 캐스팅으로 돌아온 뮤지컬 ‘웃는 남자’

2017년 예그린뮤지컬어워드 6관왕을 차지한 창작 뮤지컬 ‘웃는 남자’가 초특급 캐스팅과 함께 돌아온다. 제작 기간 5년에 제작비 175억원이 투입된 작품으로 2017년 초연해 객석 점유율 92%, 관객 수 24만명을 기록한 작품이다. ‘예그린뮤지컬어워드’ 6관왕을 비롯해 ‘한국 뮤지컬어워드’ 3관왕, ‘이데일리 문화대상’ 뮤지컬부문 최우수, ‘골든티켓어워드’ 대상 및 뮤지컬 최우수상 등 뮤지컬 시상식 4개에서 모두 작품상을 받는 엄청난 기록을 썼다.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신분 차별이 극심했던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끔찍한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순수한 인물인 ‘그윈플렌’의 이야기를 그린다. 로버트 요한슨 극작 및 연출은 이번에 극본을 더 짜임새 있게 다듬기 위해 장면 순서를 바꾸고 리프라이즈 곡(이전 멜로디를 변주하거나 반복해 만든 노래)을 삽입했다.

‘그윈플렌’ 역은 새로 합류한 이석훈과 슈퍼주니어 규

현, 초연 때 주연을 맡은 박강현과 엑소 멤버 수호가 맡는다. 이석훈은 뮤지컬 ‘광화문 연가’, ‘킹키부츠’ 등을 통해 뮤지컬 배우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다. 규현은 ‘모차르트’ 이후 4년 만에 뮤지컬 무대에 선다.

어린 그윈플렌과 데아를 거두는 떠돌이 약장수이자 서사의 중추를 이끄는 ‘우르수스’ 역에는 민영기와 양준모, 매력적인 ‘조시아나 여공작’ 역에는 디바 신영숙과 김소향이 캐스팅됐다. 순백의 마음을 가졌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데아’ 역은 신예 강혜인과 이수빈이 초연에 이어 다시 맡는다. 최성원·강태을(데이빗 더리모어 경), 이상준(페드로), 김경선·한유란(앤 여왕)도 출연한다.

공연일정(장소) 1월 9일~3월 1일(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티켓 7만~15만원
☎ 02-6391-6333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앙코르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서 다시 공연한다. 1991년 방송된 동명 드라마를 원작으로 지난해 3월 서울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초연한 작품. 원작의 명성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바람을 타고 관심을 끌었다. 극은 일제강점기인 1943년 겨울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10년을 배경으로 한다. 일본군 위안부 ‘여옥’과 조선인 학도병 ‘대치’, 동경제대 의학부 학생으로 군의관으로 전쟁에 끌려온 ‘하림’ 세 남녀의 삶을 통해 아픈 역사를 돌아보게 한다. 위안부로 끌려가 질곡의 세월을 보내는 ‘윤여옥’은 초연 때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김지현, 호소력 있는 음색을 지닌 최우리,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박정아가 맡아 3인 3색 연기를 선보인다. 여옥과 운명적인 사랑을 하는 ‘최대치’ 역에는 뮤지컬 배우로 입지를 구축한 테이, 드라마와 뮤지컬에서 활약 중인 온주완, 첫 뮤지컬 무대인 오창석이 이름을 올렸다. ‘장하림’ 역에는 마이클 리와 이경수가 캐스팅됐다.

공연일정(장소) 1월 23일~2월 27일(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5만~14만원
☎ 02-764-9102



장진표 코미디 연극 ‘꽃의 비밀’

장진표 코미디 연극 ‘꽃의 비밀’이 대학로 무대로 돌아왔다. 2015년 초연 때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은 데 이어 2016년 재공연하며 관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에 라이선스 수출된 후 상황리에 공연되기도 했다.

작품은 이탈리아 북서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수상한 여인 4명이 보험금 20만유로를 타기 위해 벌이는 소동극이다. 끊임없는 상황 코미디, 예상을 벗어나 웃음 짓게 하는 대사, 캐릭터의 깊숙한 내면을 보여주는 장면 등 ‘장진식 코미디’가 녹아 있다.

웃음 유발자 ‘자스민’ 역은 다시 캐스팅된 배종옥과 조연진이 맡는다. 풍수 왕언니 ‘소피아’ 역에는 이선주와 강애심이 캐스팅됐다. ‘모니카’ 역으로는 처음 연극 무대에 서는 김규리와 김나연이 출연한다. ‘지나’ 역으로는 문수아와 박지혜가 나온다.

공연일정(장소) 3월 1일까지(대학로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스킨 2관)
티켓 전석 5만원
☎ 02-6925-0419



진화한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부유한 양반 집안 도련님 이춘풍.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여성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커서도 기생집을 출입하며 돈을 물 쓰듯 쓰고 다닌다. 친구들과 어울려 기생집에, 노름질까지 하다 보니 그 많던 재산도 결국 바닥나고, 급기야 빚쟁이로 전락하고 만다. 춘풍의 어머니 김씨 부인은 춘풍의 바람기를 잠재우고, 경제적 위기를 타결하기 위해 몸종이지만 강단 있고 수완 좋은 오목을 며느리로 맞이한다. 오목의 능력에 힘입어 기울던 가세는 다시 일어선고, 그와 함께 잠자고 있던 춘풍의 바람기도 다시 일어선다.

마당놀이는 국립극장 효자 상품이다. 2014년부터 5년간 221회 무대를 통해 18만명이 관람했다. 지난해 객석 점유율은 약 두 달간 상연하면서 98.7%에 달했다. 인기의 원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관객과의 교감이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춘풍이 온다’는 무대에서 지내는 ‘고사’(告祀)로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출연 배우들이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앞에 앉아 있다가 열결에 무대로 끌려나가는 ‘봉

변’을 당할 수도 있다. 고사와 신나는 타악 공연과 창 등이 어우러진다.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열췌 20분 가까운 시간이 훌 지나간다.

1980~1990년대 유행한 마당놀이를 기억하는 관객이라면 추억을 더듬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학미가 깃든 말장난, 배우들의 우스운 동작과 표정 연기까지 볼만한 장면이 풍성하다. 여기에 국립극장 단원 등의 검증된 가창력은 다소 허거운 이야기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장면만 있는 건 아니다. 새로운 관객층을 흡수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



도도 엮보인다. 국악뿐 아니라 등장인물들은 힙합 음악에 맞춰서 ‘칼군무’를 선보이는가 하면, 속사포 같은 랩을 구사하며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도 한다. 지루해질 만한 타임에 마술쇼가 등장해 관객들의 시선을 끌기도 한다. 지난해에 이어 김준수가 주인공 춘풍 역을 소화했다. 국악계에 떠오르는 스타답게 시원하게 노래하고, 감정 연기도 풍부하다.

‘춘풍이 온다’는 ‘심청이 온다’(2014, 2017), ‘춘향이 온다’(2015), ‘놀보가 온다’(2016)에 이은 국립극장 마당놀이 시리즈 네 번째 작품으로, 판소리계 소설 ‘이춘풍전’을 바탕으로 했다. 손진책이 연출을, 연희의 감독은 배우 겸 연출자 김성녀가 맡았다. 춘풍 역은 김준수와 국악 신동 출신 유태평양이 더블 캐스팅됐다. 오목이는 민은경과 서정금이, 꼭두쇠는 정준태가 맡았다.

공연일정(장소) 1월 26일까지(국립극장 달오름)
관람료 전석 5만원
☎ 02-2280-4114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금호아트홀 상주 음악가 공연
세계 음악계가 주목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이 향후 1년간 국내에서 4차례 독주회를 연다. 이지윤은 독일 명문 베를린 슈타츠크펠레의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 악장이다. 그를 발탁한 건 현재 베를린 슈타츠크펠레를 이끄는 ‘명장’ 다니엘 바렌보임이다. 이지윤은 금호아트홀 연세가 진행되는 상주 음악가로 선정돼 앞으로 1년간 4차례에 걸쳐 독주회를 연다.

1월 연주에서는 현대 작곡가들의 곡을 주로 선보인다. 버르토크의 ‘루마니아 포크 댄스’, 야나체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한다. 국내에서는 자주 들을 수 없었던 코른골트, 쇼송의 작품도 들을 수 있다. 베토벤이나 브람스, 멘델스존 등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협주곡이 아니라 독주곡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있기 때문에 이지윤의 바이올린 색깔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트홀의 상주 음악가 시리즈는 젊은 음악가들을 선정해 그들의 음악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는 자리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양인모 등이 이 시리즈를 통해 소개됐다.



공연일정(장소) 1월 16일(금호아트홀 연세)
관람료 전석 4만원
☎ 02-6303-1977



카바코스의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리니스트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내한해 서울시향과 협연한다. 2013년 8월 정명훈 전 음악감독이 지휘하는 서울시향과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해 ‘대담한 해석’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번에는 서울시향의 수석 객원지휘자 티에리 피셔와 함께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한다.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은 완벽한 구성으로 빈틈이 없어 바이올리니스트에게는 오로지 ‘실력과 음악성’으로 승부해야 하는 최고 난도의 곡이다. 1악장 후반부 카바코스가 기량의 절정을 선보일 ‘카덴차’는 자신이 직접 편곡한 버전으로 연주한다. 2부에서는 하이든의 교향곡 8번 ‘저녁’과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무곡’을 들려준다.

카바코스는 1985년 시벨리우스 콩쿠르, 1988년 파가니니 콩쿠르와 나움부르크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이후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녹음해 1991년 그라모폰 올해의 협주곡상을 받았다. 2019년에는 루체른 페스티벌의 ‘아티스테 에투알’로 초청돼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아니 네테세제 지휘), 마린스키 오케스트라(발레리 게르기예프 지휘)와 합을 맞추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은 지휘자로서의 경력도 쌓고 있다. 그는 런던 심포니, 뉴욕 필,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으며 올해는 체코 필하모닉, 베를린 교향악단을 지휘한다.

공연일정(장소) 1월 9일(롯데콘서트홀)
관람료 1만~9만원
☎ 1588-1210

신영복 선생 타계 4주기를 앞두고 나온 평전이다. 성공회대 동료이자 후배, 제자인 두 저자가 오랜 시간 가까이에서 선생을 접하고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알게 된 '사실'들의 기록이다. 저자들은 선생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20년 동안 감옥살이와 보호관찰이 이어지며 솔직한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으나 해묵은 색깔론과 함께 나오는 왜곡된 사실들을 바로잡는 정직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이 집필 목적이라고 밝혔다. 선생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88년 특별석방으로 풀려난 뒤 옥중 편지를 묶어 펴낸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2016년 1월 15일 7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폴 사피로 지음, 이진구 옮김/ 흐름출판 펴냄/ 308쪽/ 1만6천원

'클린 미트'는 콩 등으로 만든 식물성 고기가 아닌, 동물 세포를 배양해 만든 동물성 고기다. 고기와 똑같지만,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염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야기다. 동물보호단체 설립자인 저자는 세계 최초로 클린 미트를 시식한 사람이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환경오염, 기근과 전염병 등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신기술의 세계로 안내하면서, 고기보다 더 깨끗하고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무해한, 클린 미트의 무궁한 가능성을 역설한다.



최영묵·김창남 지음/ 돌베개 펴냄/ 584쪽/ 1만9천500원



마리즈 콩데 지음, 장혜용 옮김/ 은행나무 펴냄/ 292쪽/ 1만3천원

성 추문으로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에 미웠던 2018년, 대안 노벨문학상인 '뉴 아카데미 문학상'을 받은 마리즈 콩데의 대표작이다. 17세기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노예로 끌려온 바베이도스 출신 흑인 여성 티투바가 백인 여성들과 함께 '세일러 마녀재판'을 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이 여성의 일대기를 그렸다.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그의 작품이 국내에 번역 출간되는 것은 처음이다.



도리스 레싱 지음, 권영희 옮김/ 창비 펴냄/ 576-476쪽/ 1만8천-1만7천원

2007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도리스 레싱의 대표작 중 하나다. 1962년 초판이 나온 소설이지만 작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창비세계문학 시리즈에서 특별판으로 펴냈다. 1950년대 런던에 사는 싱글맘이자 전 공산당원인 작가 애나와 친구 몰리의 이야기다. 과거 성 대결과 사회 분열을 부추기는 소설로 평가됐지만, 작가는 여성해방운동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옹호하는 소설이며, 분열을 딛고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반박했다. 레싱은 지난 세기 첨예한 주제들을 과감히 형상화했으며, '폭력의 아이들' 3부작을 비롯해 명작으로 꼽히는 장편소설을 다수 남겼다. 2013년 향년 94세로 타계했다.



이주란 지음/ 문학동네 펴냄/ 304쪽/ 1만3천원

2019년 젊은작가상을 받은 이주란의 두번째 소설집이다. 수상작인 '년 쉽게 말했지만'을 포함해 현대문학상과 김유정문학상 후보에 오른 표제작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문학과지성사의 '이 계절의 소설'에 선정된 '멀리 떨어진 곳의 이야기' 등 9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각기 다른 이야기지만 전체가 연작소설로 이뤄진 듯한 느낌을 준다. 대체로 결핍과 상실의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고통으로 가득한 결말로 끝나지는 않는다.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서로 마음을 열어가며 은근한 위로와 온기를 전한다.



주지중 지음/ 아득사 펴냄/ 332쪽/ 2만원

눈에 보이는 풍경을 카메라로 옮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독창성과 시각의 내성을 극복하는 일이다. 풍경 사진을 시작하면 처음엔 누구나 눈 앞에 펼쳐지는 대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취해 셔터를 누른다. 그것이 반복되면 소재에 집착하게 되고, 탐미주의에 빠지게 된다. 저자는 내 마음 안에 있는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창의적인 풍경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말한다.

2천700년 전 이집트 미라, 3년 만에 다시 서울 찾았다

글 박상현 기자



고대 이집트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들은 영혼이 여럿이라고 생각했고, 해가 지는 서쪽에 사후세계로 향하는 입구가 있다고 여겼다. 망자는 오시리스라는 신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 심판을 받았다. 저울에 심장과 정의를 상징하는 깃털을 올리고는 심장이 가벼울 때만 사후세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알아야 할 주문을 적은 글이 '사자(死者)의 서'다. 영원히 살려면 몸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다. 뇌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버렸으나, 심장은 남겨뒀다. 간·폐·위·장은 썩지 않게 처리하고 특수한 병에 보관하거나 몸속에 다시 넣었다. 그러고는 시신을 소금으로 70일간 탈수하고 아마천으로 싸 뒤 사람 모양 관에 안치했다. 고대 이집트인의 독특한 사후관과 풍습은 미라와 화려한 유물을 남겼다.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문화재가 된 이집트 유물들이 3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 3층 아시아관을

'세계문화관'으로 새롭게 꾸미고 이집트실을 신설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박물관에서 가져온 고대 이집트 문화재에는 약 2천700년 전에 제작한 것으로 전하는 토티르데스 관과 미라, 프톨레마이오스 12세로 추정되는 왕의 머리, 람세스 2세를 표현한 조각, 금·은·수정으로 장식한 따오기 관 등이 포함됐다. 토티르데스 미라는 컴퓨터단층촬영(CT) 분석을 통해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며, 골격이 건장한 인물이었음이 드러났다. 중앙박물관은 2016년 12월 브루클린박물관이 소장한 이집트 자료 230여 점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4개월 가까이 개최했다.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집트실은 3년 전 전시보다 출품 자료는 적지만, 조밀하게 공간을 구성했다.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시각 자료를 동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마련한 점도 특징이다. 이번 전시는 2021년 11월 7일까지 약 2년간 이어지는 상설전으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겨울왕국으로”...순천만국가정원 별빛축제

글 형민우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축제가 1월 27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일원에서 열린다. 매일 오후 6~9시 열리는 별빛축제는 공룡을 주제로 만든 미디어아트인 나이트 사파리와 반짝이는 별빛으로 물든 국가정원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나이트 사파리는 3D 홀로그램 영상으로 생생한 공룡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반짝이는 조명을 따라 국가정원 서문으로 입장하면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와 관람객을 맞는다. 국제습지센터에 마련된 화이트가든은 눈이 내린 동화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매직쇼를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이 없는 날에는 매일 2편의 무료 영화도 상영한다. 자세한 공연 시간과 영화는 국가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원 한탄강 물 윗길 걸으며 주상절리 비경에 빠지다

글 양지용 기자



강원 철원군이 한탄강 일대 주상절리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물 윗길(부교)을 조성했다. 군은 철원지역 겨울철 유명 축제인 '한탄강 얼음 트레킹'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태봉대교~순담계곡 7.55km 구간에 안전 부교 설치를 최근 마쳤다. 부교 안전난간·가설 구조물 설치 상태, 비상시 사용하는 수상 안전기구 구비 여부 등 안전점검도 완료했다. 관광객들은 부교를 통해 직탕폭포, 송대소, 승일교, 고석바위 등 한탄강 일원 주상절리 절경을 물 위에서 감상할 수 있다. 또 1월 11~19일 열리는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중에는 송대소, 승일교 등에서 얼음폭포 포토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교는 3월 중순까지 운영하며, 어린이와 노약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태백 시티투어버스 타고 즐기는 태백산 눈축제

글 배연호 기자

강원 태백시는 제27회 태백산 눈축제 기간인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시티투어버스가 눈축제 코스를 매일 1회 운영한다. '철암관광역사촌(철암역)을 출발해 드라마세트장~태백역~눈축제 행사장~365 세이프타운~황지연못~태백역을 거쳐 철암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요금은 성인 3천원, 초·중고생·내일로 이용자 2천원, 7세 이하는 무료다. 관광지 입장료와 식비는 이용자 별도 부담이다. 태백산 눈축제 개막 전, 황지연못, 태백역, 철암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솔바람공원 등 태백의 겨울밤을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은 별빛 페스티벌은 태백의 겨울이 끝나는 2월 말까지 계속된다.



도심에서 즐기는 눈썰매...경기북부청사 앞 광장 눈썰매장 개장

글 우영식 기자



의정부 경기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 오픈한 눈썰매장이 2월 16일까지 운영한다. 대형 눈썰매장(슬로프) 외에도 소규모 얼음 썰매장, 스케이트장, 집라인이 설치됐다. 슬로프 썰매와 집라인은 키가 120cm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120cm 미만 아이들은 얼음 썰매, 스케이트, 눈동산 놀이터, VR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평일은 매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과 설 연휴인 1월 24~25일은 휴무다. 요금은 1회 이용에 1천원이다. 입장권은 매일 오전 9시부터 행사장 내 매표소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눈썰매장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화광장(☎ 031-8030-2316)으로 문의하면 된다.